

수 백km 떨어진 한빛원전·여수산단도 흔들 “안전지대 아니다”

한빛원전

국내 24기 중 6기 몰려 있어
지진 6.0 이상이면 자동정지
전문가 “기본부터 재점검해야”

포항에서 5.4규모의 강진이 발생해 사상 초유의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연기되는 등 피해가 확산하는 가운데 영광 한빛원전과 석유화학 공장이 밀집한 여수국가산단의 안전 문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포항 강진은 국내 24기의 원전 중 6기가 몰려있는 서해안의 영광 한빛원전에서도 진동이 감지될 정도로 강했다. 광주·전남소방본부에는 700건에 달하는 신고 전화가 잇따랐고, 특히 원전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증일 이어졌다.

원전을 관리감독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6일 “국내 원자력발전소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안전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진앙에서 45km 거리에 있는 월성원전과 인근 경주 방폐장에서는 지진계측값(가속도)이 각각 0.0134g과 0.0144g으로, 원전 지진경보 기준치(0.01g)를 넘었으나 수동 정지 설정치(0.1g), 자동정지 설정치(0.18g), 원전설계기준(0.2g)보다 훨씬 낮았다는 설명이다.

국내 원전은 지진 깊이 0.1g(6.0 규모) 이상이면 운전원이 수동으로 원자로 가동을 멈추고, 0.18g 이상이면 시스템에 의해 자동정지된다. 설계기준을 초과한 지진이 일어날 경우, 국내 원전 비상계획서에 따르면 주민 소개령 검토가 이뤄지고 원자로가 녹아내릴 징후가 보이면 즉시 주민소개가 이뤄진다.

하지만 원전 전문가들은 “대지진에 대비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기본부터 다시 점검해야 한다”며 “원전이 설계

여수산단

260여 업체 중 석유화학 53곳
자체 점검 이상무...정상 가동
여수시, 재난 매뉴얼 작성 착수

기준대로 건설·유지되더라도 기준을 뛰어넘는 규모의 지진 발생 가능성과 이에 대한 대비를 충실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원전 사고의 경우 ▲원전 시설에 대한 전원(전력) 공급 대책 ▲원자로와 사용후핵연료 냉각기능 유지 방안이 기본이자 중점 점검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석유화학 공장이 밀집한 여수국가산업단지의 지진피해 불안감도 높다. 이번 지진 진앙지로부터 280여km 떨어진 여수산단 지진 감지기에서도 진도 3.0의 지진이 감지됐다.

1967년 문을 연 여수국가산업단지에는 260여개 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이 가운데 석유화학업체는 53개에 이른다. GS칼텍스와 LG화학 등 석유화학업체들은 내부 시설 점검을 거쳐 이상이 없다고 보고 정상 가동을 하고 있다.

여수시는 지난해 경주 지진 이후 재난현장 대응 표준화 시범사업지로 선정돼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행동 매뉴얼 작성에 착수했다. 국비 2억원을 받아 재난현장 대응 행동 매뉴얼 개선 연구 용역을 발주해 다양한 사고 사례를 바탕으로 매뉴얼을 만들 계획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여수산단은 내진 설계가 적용돼 문제가 없다고 보며 된다”며 “지진이 강타하면 폭발은 물론, 염소나 암모니아 등 유해 가스도 누출될 우려가 있어 평소에도 안전 점검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광=김민석기자 mskim@/여수=김정화기자 chkim@



훈련으로 끝나길... 16일 오전 광주시 서구어린이집에서 원생들이 머리를 보호한 채 건물을 빠져나오는 지진대비훈련을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지진 발생시 행동 요령

- 집안에 있을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가스 차단, 문을 열어 출구 확보 후, 밖으로 나감
- 집 밖에 있을 경우**
가벼운 가방으로 머리를 보호. 건물과 거리를 두고 운동장·공원 등의 넓은 공간으로 대피
- 엘레베이터에 있을 경우**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서 내려 계단을 이용. 지진 시 엘리베이터는 피해야
- 학교에 있을 경우**
책상 아래로 들어가 책상 다리를 꼭 잡음. 흔들림이 멈추면 질서를 지키며 운동장으로 대피
- 운전을 하고 있을 경우**
비상등을 켜고 속도를 줄여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움. 라디오 정보 있으며 킴을 찾아두고 대피

광주·전남 도시형 주택 10곳 중 9곳 지진 취약 ‘필로티 구조’

287곳이 기둥으로 지표면 띄우고 지상층 개방시켜

경북 포항 지진으로 ‘필로티 구조’ 건물이 지진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광주와 전남지역 도시형 생활주택 10곳 중 8~9곳이 필로티 구조인 것으로 나타났다. 필로티 구조는 기둥으로 건물 전체나 일부를 지표면에서 띄워 지상층을 개방시킨 구조로 지은 건물이다.

16일 국민의당 운영일 의원(해남·완도·진도군)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도시형 생활주택 안전실태 결과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기준 우리나라 도시형 생활주택 총 단지수는 1만

3933단지로서 이 중 필로티 구조로 건설된 단지는 1만2321단지(88%)에 달했다. 광주는 176단지 중 필로티 설치가 154곳(87%), 전남은 159곳 중 133곳(83%)이었다. 전국적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이 가장 많이 건설된 지역은 서울로 총 5032단지, 부산 2160단지 순이었다. 광역지자체 기준, 도시형생활주택 중 필로티 구조 비율은 부산이 96%로 가장 높았으며 대구 95%, 인천 93% 순이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전세난과 늘어나는

1~2인 가구 주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09년 도입한 것으로 전용 면적 85㎡ 이하 300가구 미만으로 도시지역에서만 지을 수 있다. 건축업자들은 건축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이유로 필로티 구조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일 의원은 “주거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한 정책이 지진 등 예방가능한 재해에 무방비인 것은 국민의 기본권인 주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매년 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고 뒤늦게 대책을 마련하는 사후약방문식 정부 정책은 반드시 개선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형호기자 khh@

김부겸 장관 “포항 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차 밟겠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16일 “포항시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지진 소식을 듣고 달려간 포항 현장은 생각보다 (피해가) 훨씬 심각했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이날 브리핑에 함께한 김희경 행안부 기획조정실장은 “(포항시는) 피해액이 90억원이 넘으면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가능하다. 초기 조사에서 선포 기준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면 (미리) 선포할 수도 있다”면서 “지나해 태풍 차바 때 (조사 완료 전 인데도) 그렇게 한 적이 있다”고 소개했다.

포항시에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지진 피해 지역으로는 경주시에 이어 두 번째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지

역은 응급대책, 재난구호,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의료상 특별지원을 받게 된다.

아울러 김 장관은 “이강덕 포항시장의 건의를 받은 이낙연 총리 지시에 따라 포항시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4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며 “조속히 검토절차를 마무리해서 이른 시일 내에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포항 지진 원인 현장조사

기상청은 포항 지진(규모 5.4)의 발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학계 전문가들과 공동으로 현장조사에 착수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현장조사에서는 진앙 주변 지역에 있는 기존 관측망 외에 40곳(기상청 9곳·지질자원연구원 6곳·부산대 2곳·서울대 10곳·부경대 20곳)에 이동식 지진계를 추가로 설치해 작은 규모의 지진까지 관측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아이들 안전과 공정성 위해 수능 연기”

문 대통령, 국민 이해 당부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포항 지진으로 인한 수능(대학수학능력시험) 연기 결정과 관련해 “아이들의 안전과 수능의 공정성을 위해 (수능 연기가) 불가피했다”며 국민들의 이해를 당부했고 포항 지진 피해 수습과 관련해 “추가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메시지를 통해 “정부는 어제 중립적인 상황 판단 끝에 수능 연기를 결정했다”며 “수능을 준비해온 수험생들과 학부모님들이 당혹스러운 상황에서 정부의 결정을 수용

하고 동의, 포항과 인근 지역 수험생들의 아픔을 함께 감당해주시 정말 감사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수능의 공정성을 위해 불가피했다고 생각한다”며 “정부는 이후 입시 일정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대비하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갑작스러운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포항과 인근 지역 주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는 이제만 여러분이 하루빨리 집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태양광 발전소 샵니다! 팝니다!

태양광 100K·200K·300K·500K·1메가

- ▶ 견적 설계·시공(지상 임야 노지, 아파트, 주택)
- ▶ 태양광 부지 매입합니다.

태양광 발전소 관리 전문

- ▶ 각도 조절, 잡초 제거(물막, 애초기)
- ▶ 모듈 청소(발전량 상승) 관리해드립니다.

태양광 발전 전문기업
※ 영업사원 모집

(주)동현태양광ENG
☎ 063-225-1116
상당 010-8813-4770

송정리 부동산 매물

- ▶ KTX 개통 최대 혜택지
- ▶ 투자가치의 3개소
- ▶ 11억, 12억, 19억
- ▶ 각 코너 위치
- ※ 2018년 초 복합환승센터 착공예정

신안군 염전 매물

- ▶ 대형부지 (만오천평)
- ▶ 태양광 부지로 검토 필요
- ▶ 투자가치

문의 010-5236-7458

기독교대안학교 입학설명회

호남의 영재들 텍사스로 입성하다

기독교학생 3주 미주훈련
2018년 1월 21일~2월 10일
(비용 320만원)

일시 : 2017년 11월 25일(토) 11:30
문의 : (061) 381-0000

TALK **광주국제기독교스쿨**
전남 담양군 무정면 중리도동길 42-34